

## 시장경제의 비극 : 베트남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배양수\*\*

### I. 머리말

1975년 남북을 통일한 베트남은 남부 베트남에 대한 사회주의화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기반을 되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에 “도이머이”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정책은 국내외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국가관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베트남은 이제 ‘경제전쟁’을 치르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전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이 승리자와 패배자는 모두 문학작

---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2003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2003-041-A00434)에 의해서 지원된 연구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부교수. baey@s@pufs.ac.kr

품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베트남 단편을 통한 현재 베트남의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령 도이머이 이전이라면 패배자보다는 승리자를 중심으로 작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정은,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 문학은 “전쟁과 생산에 관한 제재에 우선 두었고, 애국적 구호와 적개심을 고무시키며, 새로운 모범적인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낙관성을 확고하고, 모범적인 가치의 전형典형을 수립하고, 생활 속에서의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는 일과 비판적인 음조를 피하고, 사상적 주제가 분명해야 하며, 다의성을 피하고, 형식은 짧고 간결하며 쉽게 이해되어야 했기”(Phong Lê 1991: 6) 때문이라는 데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베트남 작가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서 ‘현재의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고, 베트남 문학, 베트남 소설의 경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베트남 사회문제를 보면 그러한 문제가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일 거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

이 주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이머이 이후에 출판된 『1992~1994 단편선』, 『1994 단편선』, 『단편선집(1995)』, 『1996 군대문에 단편응모작』, 『1997년 단편선』, 『2000년 단편선』, 『2002년 단편선』에서 10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2~1994 단편선』 17편 중에서 1편, 『1994 단편선』 19편 중에서 2편, 『단편선집(1995)』 28편 중에서 1편, 『1996 군대문에 단편응모작』 29편 중에서 2편, 『1997년 단편선』 15편 중에서 31편, 『2000년 단편선』 15편 중에서 1편, 『2002년 단편선』 24편 중에서 2편을 선정하였다. 작품 선정은 우선 위 책에서 작품의 내용을 검토하여 베트남 사회문제를 다룬 10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들 작품의 선정기준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다루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사회문제란 시민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상황”(Liska and Messner 2001: 4)으로 환경오염, 빈부격차, 질병, 노동자 수출 등과 같은 문제 및 마약, 매춘, 사기, 청소년 범죄 등과 같은 규범 위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당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반.끼엣 수상은 국회 보고(1993. 12. 18. 9대 국회 4차 회의)에서 “특별히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현재 각 국가기관에 퍼져있는 관료주의, 권력남용, 부정부패, 낭비에 관해서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또 부정부패, 밀수근절 투쟁을 증강시키라고 강조했으며, 당과 정부는 이 투쟁 사업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과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정부패는 국가조직과 권한과 직책을 갖고 있는 당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부정 뇌물수수, 공공재산의 도둑질과 국민을 박해하기 위하여 국가조직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밀수를 보호하고, 직접 밀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조직을 오염시키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떨어뜨립니다. 각 사회문제(매춘, 마약, 도박, 알코올중독, 타락한 생활...)는 확대일로에 있으며, 정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날로 전 사회와 모든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춘은 우리 인민의 미풍양속, 도덕에 반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종족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키는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매춘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단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특히 대도시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듯이, 베트남 정부가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슈를 다룬 작품을 고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베트남 단편소설에 나타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비극을 조망하기 위해서 작가와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상황에 대한 연구

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베트남 문학연구자들과 비평가들의 연구업적과 평가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2004년 1월과 7월, 두 차례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이 연구에서에서는 주로 역사주의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 문학 사회학적 관점과 일탈 사회학적 관점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전정구·김영민 1999: 56-61).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 글의 연구대상인 10작품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수많은 단편소설 중에서 이들 작품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표된 단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베트남의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는 기준을 설정했지만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또 왜 1998년, 1999년 단편은 넣지 않았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선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만 단편소설에 나타난 베트남 사회를 조망하는 데는 위에 선정된 작품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는 작가의 전기적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제도권 작가라 할 수 있는 베트남 문인회 회원을 제외하고 제도권 밖의 작가들에 대한 전기적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일이 대면해서 개별적 인터뷰를 하지 않고는 작가의 전기적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작품(10작품)의 작가들을 가능한 많이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작품의 생산자를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외국연구자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작가의 작품 생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10명의 작가를 만나는 일이 간단치 않았고, 상당수의 작가를 만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문인회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작가를 소개 받을 수 있었다.<sup>2)</sup>

아쉽게도 그 동안 국내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 베트남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베트남 현대소설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다만 2003년 7월 10일 우리나라 국회 전자도서관을 검색한 결과, 베트남을 주제로 한 석사논문이 158편, 박사 논문이 18편인데 이 중 석사 2편, 박사 1편이 베트남 문학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발표된 베트남과 관련된 900여 편의 연구논문과 보고서 중에서 단지 20여 편의 논문이 문학과 관련된 논문이나 이들도 대부분 구비문학, 중대문학에 관한 글이고, 근대문학에 관한 글이 1편이 있었을 뿐이다. 이 논문은 “1930~1945년간 베트남 문학의 현대화 과정”(강하나 2002: 357-372)으로 베트남 문학작품 연구라기보다는 문학사 연구에 가까운 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가 미진했는가? 이는 우선적으로 베트남 문학연구자가 국내에 많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베트남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것도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베트남 현대문학 작품은 대략 6권 정도이다. 최초의 작품은 1967년에 발표된 근대소설 『半青春』이 있고, 1986년에 나온 『사이공의 흰옷』, 1988년에 발표된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가 있었다. 그 뒤에 1993년에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과 1999년 『전쟁의 슬픔』 그리고 2002년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이란 소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半青春』과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이란 두 권의 소설 외에는 모두 불어나 영어로부터 번역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어에서 우리말로 바

2) 베트남 문인회 회장이며 시인이신 히우·팅(Hiêu Tinh)과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다오·김·호아(Đào Kim Hoa) 여사에게 감사드린다. 6명의 소설가를 직접 연락하여 주간 문예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고, 중부 후에에 거주하는 작가들 및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연락처를 챙겨주었다.

로 번역되지 못하고 제3국의 언어를 거쳐서 번역될 정도로 베트남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남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고무적인 일은 최근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한문학자들이 베트남의 한문학 작품을 번역 출판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1장 머리말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한계 등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그동안 베트남 현대문학의 담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개괄하고 3장에서 베트남 단편소설에 나타난 시장경제의 비극을 소개하고 4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 II. 베트남 문학 담론의 흐름

### 1. 1930년대

천년의 중국지배를 벗어난 후 9세기를 이어온 베트남의 독립 봉건왕조 체제가 서구세력, 즉 프랑스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기존의 질서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베트남의 유학자 혹은 사대부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식민 당국은 초기의 비교적 온건하고 타협적인 정책에서 점점 노골적이고 억압적 통치를 강화시켜 나갔고, 이에 저항하는 애국적 유학자들은 독립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모색하게 된다.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식민당국은 알파벳화 된 베트남어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부터 신문, 잡지, 서적들이 출판되었고, 유럽 문학의 조류가 베트남에 이입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근대문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전의 중국 일변도 접촉형태에서 벗어나 서구(주로 프랑스)와 교류가 확대되면서 바깥 세계와의 문화교류가 확대되었고, 창작집단도 한학과 경전을 공부한 유학자 중심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학자 출신으로 전화되며, 문

학의 수요자도 유학자에서 새로운 자산가로 바뀌어 갔고, 특히 작가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인쇄와 유통의 변화가 일어나며, 서구식 인쇄술과 책방의 등장 그리고 신문의 발달은 문학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각 신문에는 문학을 소개하는 고정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글만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작가들이 등장하게 된다(황귀연 외 2000: 24-242).

베트남에서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논쟁은 ‘국학’이라는 주제로 1920년대 중반부터 1941년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필진”이라고도 불리는 이 논쟁의 쟁점은 과연 베트남에는 진정한 자기들만의 학문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당시의 각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상대방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직설적이었다(배양수 2003: 85).

이러한 논쟁의 시발은 응오·득·께(1878~1929)라는 유학자 출신의 독립운동가로부터였다. 그는 외래문화의 수용과 변용 방법을 제시하면서 국학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Ngô Đức Kế 2001: 44-46).

이렇게 시작된 베트남에서의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시도는, ‘국문’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하여 ‘국학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 논쟁은 팜·꾸잉(1892~1945)과 판·코이(1887~1960)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1930년에 시작하여 1941년까지 이어진다.

두 사람 모두 국학 바로 세우기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방법론에서는 판이하게 달랐다. 따라서 끝없는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세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sup>3)</sup> 팜·꾸잉은 ‘국학진흥회’

3) 베트남에 국학이 있다고 주장한 이는 레·즈(Le Du)로 “국학이란 한 나라의 학문과 기술이며 그 학문과 기술은 자신의 고유한 것 또는 타국의 것을 배워 많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고유한 것으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위 두 사

설립을 주장하면서 이 ‘회’를 중심으로 베트남 국학을 세워나가자고 주장(Pham Quỳnh 2001: 125)한 반면에 판·코이는 그러한 ‘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베트남에 진정한 학술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파괴와 건설”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제와 송나라 유교는 파괴의 대상이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깊이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지식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Phan Khôi 2001b: 132-136).

이 두 사람의 국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모두 베트남에 진정한 국학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학을 세워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다. 팜·꾸잉이 개량적인 생각을 가진데 반해 판·코이는 과거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한학과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팜·꾸잉은 과거에 급제하여 당시 조정의 관리를 지내다가 1945년 ‘8월혁명’ 이후 친불파로 지목되어 월맹 측에 체포되어 총살형을 받았고, 판·코이는 월맹측에 가담하여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지만 그 역시 ‘년·반·자이·팜(人文佳品)’ 운동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게 된다.

베트남의 국학논쟁을 보면 국학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서로 달리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치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국학 바로세우기의 목표는 “국가의 존망과 관계”(티에우 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Thieu Son 2001: 310). 당시의 신문 잡지는 프랑스 식민지 당국의 검열을 받았고, 어떤 글은 검열로 삭제되기도 했으며,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베트남의 국학논쟁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항

---

팜이 국학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중국이나 유럽을 쳐다보다가, 구미의 이론과 과학을 보고 다시 베트남을 바라보니 베트남에는 과학적 학술이 없다고(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Lê Du 2003: 203-207).



체 바이러스' 생성논쟁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상' 즉 막시즘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항체문화' 논쟁은 적어도 북베트남에서는 막시즘으로 통일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배양수 2003: 87).

## 2. 인문가품운동

1930년대의 국학논쟁과 다양한 문예사조의 확산은 1945년 8월 혁명 이후 북베트남에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족문학에 대한 논쟁보다는 '새로운 사상'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호·찌·밍(胡志明)은 “피압박 민족은 문예 역시 자유가 없다. 문예의 자유를 원한다면 혁명에 참가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베트남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안내하는 지침서인 1943년에 편찬된 <베트남 문화 강요綱要>에서 “민족, 과학, 대중”이라는 3가지 방침을 천명하였고, 1957년의 전국문예 대회에서 당서기장 쓰영·짱은 앞의 3가지 방침을 “민족성, 현실성, 인민성”이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언명하였다. 작가, 작품이 “당과 국가의 정책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잘못이었고, 작품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작가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학은 항상 당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했던 것이다(배양수 2003: 88).

1945년 9월 독립을 선언한 이래 북베트남 정권은 베트남을 재점령한 프랑스와 북부 산악지대에서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가 물러날 때까지 지루한 전투를 벌여야 했고, 1954년 프랑스를 물리친 이후로 북베트남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면서 급진적 토지개혁의 실시로 인해 방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급진적 토지개혁의 과오가 노출되는 과정에서 문인들의 “민주화”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1956년 3월에 출간된 <자이·땀 1956(佳品 1956)>에서 북베트남의 모순과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년·반人文>이라는 신문도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년·반·자이·땀人文佳品 운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언·지에우, 또·히우와 같은 작가들과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년·반’과 ‘자이·땀’은 폐간 당하고, 주동자로 분류된 쩌·전은 수감되었으며, 이 운동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붓을 놓아야 했다.

근대 이후 베트남 문단에서 벌어진 두 번째 논쟁은 일방적으로 끝났지만 이 논쟁은 앞으로 더 논의가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남부 베트남 출신 작가들의 글이 있지만 이 글 또한 너무 ‘반 베트남적’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 논쟁의 진실과 의미를 찾는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56~1958년의 년·반·자이·땀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잘못된 이론적 관점에 대항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당 노선의 관점에 따라 민족문학 유산 및 문학이론 문제를 체계적이고 엄숙히 연구할 목적으로” 베트남 문학원을 설립한다. 이후로 베트남 문학은 베트남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특수성 즉, 전쟁과 사회주의화 과정의 영향으로 개인적 사고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고가 주류를 이루면서 묘사에 있어서 동일성이 나타나는 단점도 노출되었다(배양수 2003: 89).

### 3. 문학의 도이머이

세 번째의 문학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베트남이 통일을 이룬지 10여년이 지난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공산당이 ‘도이머이’ 정책을 천명하면서부터이다.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강조한 것은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평가하며,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학 창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선적으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 작가의 재능과 작품의 가치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충분한 설득력과 새로운 독창성으로 삶의 사실을 언급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이다(Nguyễn Văn Hạnh 1987: 7).

이 때 나타난 작품으로 주목받는 작품은 응웬·후아·티엡의 중편 『퇴역장군』과 바오·닝의 장편 『전쟁의 슬픔』이다. 『퇴역장군』은 기존의 전쟁의 영웅 퇴역장군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생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영웅성’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전쟁의 슬픔』은 “정의가 승리했다. 인심도 승리했다. 그러나 악과 비인간적 폭력도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은 슬픈 것이라고 가슴 아파했고,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반향을 일으켰다(황귀연 외 2000: 253).

당 문학노선인 민족성, 현실성, 대중성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화해지면서 소재에 대한 민주성과 ‘사유의 도이머이’로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민족단결과 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도 요구받고 있다. 이 세 번째 논쟁은 80년대 중반에서 90년까지 이어지다가 잠시 제자리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배양수 2003: 90).

#### 4. 가상공간에서의 문학논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만들어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획득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며 비록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으나 그 열성과 발전의 속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

80년대 중반이후 1990년까지의 베트남 문학에서의 ‘개혁 개방’은 1990년대의 숨고르기를 거쳐서 가상공간인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논쟁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낸 사람은 베트남 여류 작가이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팜 타 호아이다. <http://www.talawas.de>라는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베트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교포 그리고 베트남 문학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를 아우르는 종합토론의 장을 열어 놓았다.

이 사이트는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비중 있는 작가나 연구자들의 글을 실었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여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게다가 베트남 국내외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상공간에서의 베트남 문학논쟁은 현재의 베트남정권 입장에서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베트남 내에 만들어진 베트남 문학 전문 인터넷사이트<sup>4)</sup>이다. 그 외에도 많은 국내외의 문학 사이트가 있지만 국외의 talawas와 국내의 evan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talawas가 논쟁을 주로 하고 있다면 evan은 논쟁은 물론 국내외의 작품(소설, 시)도 다루고 있다.

---

4) <http://www.evan.com.vn>

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베트남 문학 논쟁이 네 번째 논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논쟁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으로 훨씬 역동적이며 흥미를 끈다. 이러한 형태의 문학논쟁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개인의 의견발표를 자유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II. 시장경제의 비극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의 문학 논쟁은 ‘우리 것 찾기’에서 출발하여 인문가품 운동과 문학에서의 사회주의화를 거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도이며이 시대로 접어들었다. 베트남의 시장경제는 비록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작가,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10개 작품에 나타난 문제를 ① 교육문제 ② 외국투자의 폐해에 대한 경고 ③ 경제개발의 부작용과 소외 ④ 시장경제로의 적응의 문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어떤 작품은 한 가지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표 1> 참조).

#### 1. 교육문제

베트남의 도이며이 정책은 경제부문에서 그 성과가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 식량 수입국에서 제2의 쌀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시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일치된 목표가 있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

〈표1〉 베트남 단편소설

순서	작품명	내용	시점	년도
1	고향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	3인칭 관찰자	1995
2	골목	시장경제의 역기능	1인칭 관찰자	1997
3	귀환	노동자의 고달픈 외국생활	3인칭 관찰자	2000
4	글을 팔다	시장경제 하에서의 가난한 교사의 갈등	3인칭 관찰자	1997
5	늦은 사랑	진정한 사랑과 부부의 정절	1인칭 관찰자	2001
6	달 밤	물질로 인한 부부관계의 타락	3인칭 관찰자	1992
7	왕의 식사	시장경제로의 적응의 문제	1인칭 주인공	1996
8	탈옥체	외국투자기업의 폐해, 환경오염	1인칭 주인공	1994
9	향고장	돈으로 농락당한 처녀의 살인	1인칭 주인공	1996
10	흰 돌	예술가의 고민, 타락	3인칭 관찰자	1994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었다. 전쟁은 외부의 적과 대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성원의 목표에 대한 일치할 수 있었지만 의식주의 해결은 우선적으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식을 베트남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순기능과 그에 따르는 역기능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가난에 시달리는 교사가 부유한 집 자식에게 과외를 하게 되는 부이득. 바(Bùi Đức Ba)<sup>5)</sup>의 「글을 팔다(Bán chữ)」는 시장경제하에서 생계를 위해 굴욕을 견디는 교사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뼈뼉어린 학생, 끼엠에게 국어 과외를 하는 쯩 선생은 졸업시험에서 끼엠이 국어과목에

5) 하노이 하이바쑹(Hai Bà Trưng)구에 있는 호앙반투(Hoàng Văn Thụ) 고등학교 교사.

서 낙제를 하자, 끼엠은 쯙 선생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수시로 쯙 선생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쯙 선생은 그 때마다 돈을 뜯겼다. 결국 끼엠이 마약과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쯙 선생은 해방될 수 있었다(Bùi Đức Ba 1998: 97-108).

이 작품은 현재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과외’ 문제와 학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사 특히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과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은 이제 베트남에서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퍼져있고, 학생들의 마약 사용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유한 집 자식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했다는 얘기는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돈으로 교육을 살 수 있다는 사고는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식에게도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 외국투자의 폐해에 대한 경고

경제 부흥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외국투자 허용정책으로 많은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장경제를 배우려는 베트남은 노련하고 부도덕한 일부 외국기업들에게 더할 수 없는 호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 쯩에우-후언(Triệu Huán)<sup>6)</sup>의 「탈육체(Thoát xác)」이다. 외국기업과 합작하는 것은 바로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그 합작회사는 외국에서 폐품을 가져다가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다. 즉,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회사는 외국의 쓰레기를 베트남에 버리는 것일 뿐이었다. 결국 들통나서 패가망신하고 만다(Triệu Huán 1995: 166-177).

6) 1950년 생으로 하노이 거주.

돈으로 성을 사는 부도덕한 사장과 그에 속는 순진한 젊은 여성,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 즉, 돈과 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스엉·응웻·밍(Sương Nguyệt Minh)<sup>7)</sup>의 「항고장(Bản kháng án bằng văn)」이 있다.

이 이야기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여성의 항소장 형식을 통해 전개된다. 주인공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계모와 함께 살게 된다. 아버지는 군인으로 자주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계모 밑에서 이복동생과 함께 성장하였다. 개방의 물결이 시골에 밀려오면서 시골 사람들도 물질문명에 의해서 타락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베트남 교포가 마을에 공장을 투자하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계모와 그녀도 그 회사에 일자리를 얻어 생활이 날로 풍족해져갔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교포 사장과 사랑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지만 사장은 그녀에게 돈을 주고 낙태를 권유한다. 한편 군대에서 전역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부인과 자식의 변화를 보고 당황한다. 아버지의 권유나 당부에 대해서 자식과 부인은 고루한 생각이라고 편잔을 주기 일쑤이다.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옛날 집으로 돌아간다. 몸조리를 마친 그녀가 시내 집으로 갔다가 계모와 자기를 임신시킨 사장이 놀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분을 참지 못한 그녀는 칼로 사장을 찔러 죽인다. 한편 계모는 황급히 도망가다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한다. 이제 그녀는 감옥에서 항고장을 쓴다.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지만 살고 싶다고, 살아서 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외친다(Sương Nguyệt Minh 1996: 181-192).

7) 현역 상좌로 군대문예지 기자로 하노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이 거의 끝나 갈 즈음에 베트남 농촌에서의 시장경제의 여파를 그린 <마을을 지나며>, <동 마을>이란 두 작품을 메일로 보내왔다.



### 3. 경제개발의 부작용과 소외

베트남 정부는 ‘부민강국, 정의롭고 문명화된 사회, 공업화,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나누어 먹을 파이를 크게 만드는 이 과정은 항상 이상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공업화,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호.띵.땀(Hồ Tĩnh Tâm)<sup>8)</sup>의 「골목(Xóm phố)」이 있다.

지방 도시의 한 골목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된다. 옆집 처녀 느영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동묘지에서 손님을 받는다. 알콜 중독자 옆집 아저씨 바득은 무덤을 파서 금이빨을 주워서 돈을 벌고, 가끔은 외상으로 느영과 잠을 잔다. 골목 끝에 있는 절의 주지는 바득과 술을 마신다. 정신장애자 딸을 둔 의사가 골목으로 이사 왔다. 그 딸이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느영이 그 아이를 맡는다. 의사는 축구 경기를 관람하다 사망하고, 느영은 지계꾼과 결혼하여 아이를 입적시킨다. 마을이 개발되면서 서양인들이 들어오고, 의사 셋째 딸은 서양인과 결혼한다. 마을 처녀들은 서양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도로가 개설되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집집마다 땅을 팔아 새로 집을 짓는다. 바득은 암에 걸려 죽었고, 공동묘지는 공원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그곳은 매춘의 장소였다(Hồ Tĩnh Tâm 1998: 69-80).

이 작품은 베트남의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과 도시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운명을 바꾸려는 서양인과의 결혼, 그러나 끝없이 가난한 여성 느영은 여전히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8) 1952년 생으로, 메콩델타지역의 빙롱(Vĩnh Long) 사범전문대 교수로 재직.

경제발전은 도시화를 촉진하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탈출’과 이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소외문제가 나타난다. 호앙 프엉.뎀(Hoàng Phương Nhâm)<sup>9)</sup>의 「고향(Quê Hương)」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농부는 그 자식이 사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을 보게 된다. 부인이 세상을 뜨자 혼자 남은 농부는 아들 부부에 의해 도시로 모셔진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지만 노인은 불편해 한다.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 도시 생활”은 노인을 외롭게 만들었고, 결국 “노인은 미칠 듯이” 고향을 그리워한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만 손자들의 재롱조차도 노인은 어쩐지 어색해 한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노인이지만 항상 외로움 속에 지낸다. 결국 노인은 짐을 싸서 고향으로 ‘탈출’한다(Hoàng Phương Nhâm 1996: 23-31).

시장경쟁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이다. 또한 전쟁 영웅들이 ‘새 시대’에 적응하는 문제도 베트남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광.카잉(Quang Khánh)<sup>10)</sup>의 「늦은 사랑(Yêu muộn)」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쌍은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린 백전노장이다. 오직 전투밖에 모르는 진정한 군인이었고, 총각 때는 모든 여성들의 선망을 받는 신랑감이었다. 그는 잘 나가는 국영상점의 책임자인 아내가 있었다. 부대와 집은 너무 멀었고, 그는 가끔 휴가를 얻어 집에 다녀가곤 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아내와 딸은 ‘법적으로만 아내와 딸’이었지 그에게 냉담했다. 후방은 전방 체질인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부대 근처의 젊은 여선생과 사귀게 되었고, 부인은 이를 알고 뒷선에 줄을 대서 그를 먼 곳으로 진출 보냈다. 그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부인은 이혼에 동의하

9) 하노이 남쪽에 있는 닝병(Ninh Bình)성 거주.

10) 베트남 서북지역인 뚜옌꽝(Tuyên Quang)성 거주.

지 않았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도 아내가 줄을 대는 법원서기는 접수조차 않으려고 한다. 그는 우연하게 자기 두 딸이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부인을 추궁하여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부인은 이혼에 동의하였다. 합의이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서기는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면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터에서만 구른 그는 빈손”이었기에 통사정을 하지만 서기는 “전쟁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핀잔한다. 이에 격분한 썩은 그를 불러내 두들겨 패준다. 이 일로 그는 징계를 받고 전역하여, 젊은 여선생과 재혼하여 한적한 곳에서 음식점을 하며 “늦은 사랑”을 즐기며 산다(Quang Khánh 2002: 218-243).

#### 4. 시장경제로의 적응의 문제

고등학교 동창생이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겪는 사회적응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도·비엣·응이엠(Đỗ Việt Nghiệm)<sup>11)</sup>의 「왕의 식사(Com vua)」가 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떼과 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쥘은 군에 입대하며 전투에 참가하고 떼는 러시아에 유학을 간다. 제대 후 쥘은 역사를 공부하여 사학자가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옛 수도였던 후예의 고급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간다. 떼는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이 식당은 옛날 임금님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아주 화려하고 비싼 곳이었다. 가난한 사학자인 쥘은 이러한 곳에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11) 49년생이며, 현역 대좌로 군대문예지 호치민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왕의 식사>를 읽었으며, 이 작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자, 새로 수정한 원본을 주면서 책이 아닌 이 수정본을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좋은 격렬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전쟁터는 총소리나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자존심, 인격, 자기 자신을 잃을 수 있었다(Đỗ Việt Nghiêp 1996: 168-180).

팜 타잉-퐁(Phạm Thanh Phong)<sup>12)</sup>의 「밝은 달밤(Đêm trắng sông)」은 돈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남자의 회한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출세를 위한 재혼은 두 사람간의 메울 수 없는 골을 그리고 있다. 건설부 차관의 딸과 재혼한 주인공은 러시아로 유학 가서 건축을 공부했고, 귀국해서 건설분야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방방 곡곡에서 노동자에서 지식인까지, 수공 노동자에서 건축사까지 쏟아져 나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이윤이었다.”(Phạm Thanh Phong 1995: 236)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건축 붐이 일자 주인공은 설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다. 남자는 돈은 벌었지만 여전히 고생하는 전처와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이중적인 행동을 아는 둘째 부인은 그를 경멸한다.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몰들어 의리 없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Phạm Thanh Phong 1995: 223-241).

현재 베트남은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에는 주로 동구권 국가로 노동자를 수출했었다. 베트남에는 이와 관련된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해 외국에 갔지만 돈은 벌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투이링(Thuỳ Linh)의 「귀환(Trở v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에 노동하러 간 베트남인들의 고생스런 얘기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돈을 벌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는 꿈을

12) 베트남 텔레비전 드라마극에 근무.

안고 고향을 떠나 러시아로 온 것이다. 대학 3학년을 중퇴하고 러시아로 온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내팽겨치고 거지로 살아가지만 그 거지 생활도 경쟁이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다 고향 청년을 만나 친구를 맺게 되었다. 그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갈 거라며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훔쳐간 것을 알고는 그 청년을 두들겨 팬다. 가끔 길에서 그 청년을 마주칠 때마다 그 청년은 그를 피했다. 시간 흐르고 그는 이 타향 땅에서 그래도 친구는 그 청년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그와 친구를 맺는다(Thuỳ Linh 2000: 359-378).

이 얘기는 러시아에 노동자로 간 베트남 청년의 고달픈 삶과 돈 때문에 변절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오늘 날 꿈을 찾아 외국으로 노동하러 나가는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외국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일깨워 준다.

돈벌이와 예술성 사이에 고민하는 조각가의 방향을 그린 넷·뚜언(Nhát Tuấn)<sup>13)</sup>의 「흰 돌(Đá trắng)」이 있다.

유명한 조각가가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생을 마치려고 하는 찰나에 조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장의 부탁으로 대량 생산용 조각품의 모형을 만들게 된다. 조각가는 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되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수록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영감을 억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한 소수종족의 청년을 만나 돌을 찾으러 따라가게 되는데, 청년의 얘기가 시작된다.

산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그들에게 평야지역에서 올라온 장사꾼과 의형제를 맺고 자기 집에서 목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마누라와 같이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 마누라를 도망가게 만든

13) 1942년생이며 호치민시 거주.

주술이 있는데 그것은 발가벗은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자그만 조각상 때문이라며 내민다. 그 조각상은 바로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제 조각가는 진정한 예술작품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Nhất Tuấn 1995: 56-67).

#### IV. 맺는말

베트남 현대문학은 전쟁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은 베트남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의 반 이상을 전쟁 속에서 보낸 민족이 베트남 민족이다. 그것도 외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과의 전쟁이었다. 베트남 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20세기의 전쟁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이었다. 따라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전쟁에서 문학도 그에 앞장서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할일이 많았다. 전쟁으로 파괴된 모든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평화의 시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는 새로운 사고가 있어야 했다. 그것이 도이머이었다.

도이머이는 문학에서도 요구되어졌고, 작가들은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이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들을 그들의 작품 속에 담기 시작하였다. 작가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들의 금전적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새로운 물결의 잘못된 단면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필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사회문제들을 보여줌으로써 베트남 독자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응웬·카이(Nguyễn Khải)<sup>14)</sup>의 「지위(Danh phận)」가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소자본가였던 캉은 베트남이 사회주의화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전쟁에도 참여했지만 무사히 귀향하여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수가게를 열어 큰돈을 번다. 캉은 “자본가 계급이었기 때문에 2급, 3급 국민이었고 항상 의심받고 예외였으며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얻지 못했으나” 도이머이 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능력 있는 자나 돈 있는 자에게도 그들만의 어떤 지위가 부여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존경”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캉은 여행할 때도 “장관 못지않게” 비행기를 이용하고 고급 호텔에 투숙한다(응웬카이 2005: 63-72).

이 글은 베트남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가 베트남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베트남의 것만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일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단편들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약, 매춘, 불륜, 사기, 소외, 부적응, 불공평, 과외, 부정부패, 빈곤, 배금주의 등은 오늘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사회현상인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베트남 문학, 베트남 단편소설, 베트남 소설,  
베트남 현대문학, 시장경제.

14) 1930년 생으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혁명작가이며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호치민시에 거주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하나. 2002. “1930~1945년간 베트남 문학의 현대화 과정.” 『베트남연구』 3: 357-372.
- 배양수. 2003. “베트남의 문학담론.” 『민족예술』 03/07: 84-90.
- 응웬카이. 2005. “지위.”(배양수역) 『아시아의 단편소설 I』. 아시아지역연구 소편.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pp. 63-72.
- 전정구·김영민. 1999. 『문학이론연구』. 서울: 새문사.
- 황귀연 외. 2000. 『베트남의 이해』. 부산: 부산외대출판부.
- Liska, A. E. and S. F. Messner. 2001. 장상희 역. 『일탈과 범죄사회학』. 서울: 경문사.
- Bùi Đức Ba. 1998. Bán chữ(글을 팔다). Tuần báo Văn nghệ: Truyện ngắn hay 1997. NXB. Hội Nhà văn. Hà Nội. pp. 97-108.
- Đỗ Viết Nghiệm. 1996. Cơm vua(왕의 식사). Truyện ngắn dự thi 1996 chọn lọc. NXB. Văn học. Hà Nội. pp. 168-180.
- Hồ Tĩnh Tâm. 1998. Xóm phố(골목). Tuần báo Văn nghệ: Truyện ngắn hay 1997. NXB. Hội Nhà văn. Hà Nội. pp. 69-80.
- Hoàng Phương Nhâm. 1996. Quê Hương(고향). Truyện ngắn dự thi 1996 chọn lọc. NXB. Văn học. Hà Nội. pp. 23-31.
- Lê Dư. 2001. Vấn đề quốc học(국학 문제).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203-220.
- Ngô Đức Kế. 2001. Nền quốc văn(국문).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40-47.



- Nguyễn Văn Hanh. 1987. *Đổi mới tư duy, khẳng định sự thật trong văn học nghệ thuật*(문학예술 속에서의 사실의 확정, 사유의 도이머이), *Tạp chí Văn học*. số 2, Viện Văn học, Hà Nội. pp. 9-12.
- Nhất Tuấn. 1995. *Đá trắng*(흰 돌). *Truyện ngắn hay 1994*. NXB. Văn học. Hà Nội. pp. 56-67.
- Phạm Quỳnh. 2003. *Bàn về quốc học*(국학에 관하여).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137-165.
- Phạm Quỳnh. 2001. *Trả bài cảnh cáo các nhà học phiệt của Phan Khôi tiên sinh*(판코이 선생의 학벌 경고에 관한 회신).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125-126.
- Phạm Thanh Phong. 1995. *Đêm trăng suông*(달 밤). *Truyện ngắn chọn lọc 1992-1994*. NXB. Quân đội nhân dân. Hà Nội. pp. 223-241.
- Phan Khôi. 2001. *Luận về quốc học*(국학에 관한 론).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167-176.
- Phan Khôi 2001b. *Về cái ý kiến lập Hội chấn hưng quốc học của ông Phạm Quỳnh*(팜꾸잉 선생의 국학진흥회 설립에 관하여).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127-136.
- Phong Lê. 1991. “*Nhận dạng văn học Việt Nam sau 1945*(1945년 이후의 베트남 문학의 모습)”, *Tạp chí Văn học*. số 4, Viện Văn học, Hà Nội. pp. 5-8.
- Phong Lê. 1994. “*Văn học nhìn từ yêu cầu đổi mới và vì sự nghiệp đổi mới* (도이머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도이머이의 요구로부터 본 문학)”, *Tạp chí Văn học*. số 8, Viện Văn học, Hà Nội. pp. 1-5.
- Quang Khánh. 2002. *Yêu muộn*(늦은 사랑). *Truyện ngắn chọn lọc 2002*. NXB. Văn học. Hà Nội. pp. 218-243.

- Sương Nguyệt Minh. 1996. Bản kháng án bằng văn(항고장). Truyện ngắn dự thi 1996 chọn lọc. NXB. Văn học. Hà Nội. pp. 181-192.
- Thiếu Sơn. 2001. Nói chuyện quốc học(국학에 관한 언급). Tranh luận văn nghệ thế kỷ XX. NXB. Lao động. Hà Nội. pp. 307-333.
- Thùy Linh. 2000. Trở về(귀환). Truyện ngắn hay 2000. NXB. Hội Nhà văn. Hà Nội. pp. 359-378.
- Triệu Huân. 1995. Thoát xác(탈육체). Truyện ngắn hay 1994. NXB. Văn học. Hà Nội. pp. 166-177.

Abstract

## Tragedy of Market Economy Reflected in Vietnamese Short Stories

Bae, Yang-Soo

(Pusan Univ. of Foreign Studies)

The paper focuses on learning about the people and identifying contemporary social issues of Vietnam reflected by Vietnamese short stories. Also, we expect to find out that any society implies in it similar issues, wherever it is in Korea, in Vietnam or in other countries.

The subject has been considered on the basis of 10 short stories selected in many literature collections, such as Selected short stories 1992~1994, Interesting short stories 1994, Selections of stories in contest 1996, Interesting and award-winning stories, Interesting and award-winning stories Magazine of Army Literature and Arts (Tap chi Van Nghe Quan Doi), Interesting short stories 1997, Interesting short stories 2000, Selected short stories 2002.

The research documentation is subjectively selected by the author, who did read and choose them based on matched criteria of reflecting social issues. This subjectiveness may define limitation of the paper's generalization as outcome.

The paper is approached from historical methodology, combined with sociological literature as a additive tool of analysis.

The paper's outcome is the findings of contemporary issues of Vietnamese society, such as drugs, prostitution, corruption, personal issues coming from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processes (desolateness of old persons, real state speculation ...). The above mentioned issues also occur in our Korean society. There may be differences in details bu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general.

Key words: Vietnam, Vietnamese literature, Vietnamese Short Story, Vietnamese temporary literature, market economy.